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자	소 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 명 및 직 위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출장기간	2024년 6월 9일 – 6월 13일 (3박 5일)			
출장지	프랑스 파리			
출장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성평등 포럼(OECD Forum on Gender Equality) 패널 토론 - 국제포럼 참석 및 OECD 회원국의 성평등 정책 동향 파악 - OECD, UNESCO 등 국제기구 내 성평등 담당 부서와 협력 강화 			
경비부담	본원 부담 (₩14,164,100)			
주최기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출장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녹색 성장에 따른 변화로 성평등이 도전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변화가 취약계층과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 • 디지털 시대의 성평등 및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한 기회, 혁신 전략 및 정책 과제 발굴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국제협력 활성화 사업
OECD 성평등 포럼
참석을 위한 프랑스 출장

출장 복명서

2024. 6. 2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국 제 협 력 센 터

1

출장 개요

1. 기간: 2024년 6월 9일 - 6월 13일(3박 5일)
2. 출장지: 프랑스 파리
3. 출장자: 김종숙 원장,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총2명)

<출장자 역할 분담표>

이름	소속 및 직책	역할
김종숙	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성평등 포럼 세션3 패널 토론 - OECD, UNESCO 등 현지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의제 발굴 - 포럼 참석을 통한 해외 성평등 정책 동향 파악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성평등 포럼 실무지원 - OECD, UNESCO 등 현지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의제 발굴지원 - 포럼 참석을 통한 해외 성평등 정책 동향 파악

4. 출장 목적 및 배경

가. 목적

- 포럼 패널 토론
- 포럼 참석 및 OECD 회원국의 성평등 정책 동향 파악
- OECD, UNESCO 등 국제기구 내 성평등 담당 부서와 협력 강화

나. 배경

- OECD에서 기획한 고위급 성평등 포럼에 <세션3: 디지털 성 격차 해소 및 디지털 기술이 여아와 여성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패널 토론 참가요청을 받음.
- 이에 본원은 포럼에 참석하여 디지털 시대에 성평등 확대를 위한 기회 및 전략을 모색하고, 나아가 포럼에 참석하는 OECD 회원국, 국제기구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본원의 국제 네트워크를 확장함.

II. 출장일정(안)

날짜	일정
6/9(일)	◆ 출국(KE901 인천 11:10 → 파리 18:30)
6/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럼 참가 및 발표 ◆ OECD 개발센터 기관면담 ◆ 참가자 리셉션

날짜	일정
6/11(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럼 참가 ◆ OECD 공공거버넌스국 기관면담 ◆ OECD 대표부 면담
6/12(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ESCO 성평등국 기관면담 ◆ OECD 대표부 주최 오찬 ◆ 입국(KE902 파리 21:00 → 인천 15:55(+1))

2

OECD 성평등 포럼¹⁾

1. 회의명: OECD 성평등 포럼(OECD Forum on Gender Equality)
2. 주제: 국제 전환 탐색(Navigating Global Transitions)
3. 주요 내용:
 -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녹색 성장과 같은 주요 변화로 성평등이 큰 도전에 직면. 이러한 변화가 취약 계층과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 디지털 시대의 성평등 및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한 기회, 혁신 전략 및 정책 과제 발굴
4. 주최: OECD
5. 일시 및 장소: 2024.6.10.(월)-6.11.(화) / 프랑스 파리 OECD 컨퍼런스 센터
6. 참석자: OECD 회원국, 비회원국 파트너 국가, 시민사회, 민간 부문, 국제기구 및 개발은행 고위급 관계자
7. 세부 프로그램

Day 1 - 2024년 6월 10일(월)	
08:30-09:00	등록
09:00-10:30	개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 - Amina J. Mohammed 유엔 부사무총장 - Michelle Bachelet 전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및 전 칠레 대통령 - Lubna Jaffery 노르웨이 문화평등부 장관 - Joe O'Brien 아일랜드 지역사회개발부 장관 - Geeta Rao Gupta 글로벌 여성 문제 담당 미국 대사 - Helena Sangeland 스웨덴 OECD 상임대표 - Sylvie Durrer, 스위스 성평등국 국장
10:30-11:00	휴식
11:00-12:30	세션1: 넷 제로를 위한 성평등 및 기후 행동 통합

1) 포럼 세션 영상 및 주요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s://www.oecd-events.org/forum-on-gender-equality/en>(접근일: 2024.6.22.)

	<p>사회: Martin Goillandeau 저널리스트</p> <p>배경 설명: Jo Tyndall OECD 환경국장</p> <p>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ancia Elena Marquez Mina 콜롬비아 부통령, 성평등부 장관 - Maria-Alexandra Kefala 그리스 사회통합가족부 장관 - Nouf bint Muhammmad bin Abdullah 공주, 킹 칼리드 재단 CEO - Elise Buckle Climate and Sustainability CEO, SHE Changes Climate 공동창립자 - Hans-Jorn Weddige OECD 기업환경 및 에너지 위원회 의장 - Chiara Corazza CCC 회장, 프랑스 G20 임파워 대표, G7 성평등 자문위원회 위원
12:30-14:00	점심
14:00-15:30	<p>세션2: 에너지 전환 시대의 성평등 활성화</p> <p>사회: Charles Pellegrin 저널리스트</p> <p>배경 설명: Brian Motherway, 국제에너지기구(IEA) 에너지 효율 및 포용적 전환 부서장</p> <p>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chal Mlynar 유엔 해비타트 사무총장 대행 - Fiona Rayment 국가원자력연구소 CEO 자문역 - Chris Henderson 루모스 에너지 회장, Indigenous Clean Energy 창립대표 - Alison Tate 국제노동조합 경제 및 사회정책 이사 - Silvana Koch-Mehrin Women Political Leaders 창립 대표
15:30-16:00	휴식
16:00-17:45	<p>세션3: 디지털 성 격차 해소 및 디지털 기술이 여성 및 여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p> <p>사회: Alice Antheaume 저널리스트</p> <p>배경 설명: 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 및 혁신국장</p> <p>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eta Rao Gupta 글로벌 여성 문제 담당 미국 대사 - Katri Viinikka 핀란드 성평등 대사 - Jongsoog Kim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 Merav Peretz-Belinsky 이스라엘 디지털 기구 부원장 - Marja Ruotanen 유럽평의회 민주주의 및 인간존엄성 국장 - Katja Cic 국제청소년건강기구 프로젝트 이사 - Katarina Wallin Bureau 마이크로소프트 전략관계 총괄
17:45-19:30	리셉션
Day 2 - 2024년 6월 11일(화)	
09:00-09:15	<p>개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rik Vestergaard Knudsen OECD 사무부총장

	<p>기조연설</p> <p>- Francia Marquez Mina 콜롬비아 부통령</p>
09:15-10:45	<p>세션4.1: 성평등을 위한 다부문 접근 방안: 성평등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벽</p> <p>사회: Britta Sandberg 저널리스트</p> <p>배경 설명: Mark Pearson OECD 고용, 노동, 사회국 부국장</p> <p>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anda Rishworth 호주 사회서비스부 장관 - Lubna Jaffery 노르웨이 문화평등부 장관 - Gloria Mills CBE 영국 UNISON 평등담당 국가 비서, 유럽 노동조합 연맹 여성위원회 의장, 공공 서비스 국제여성위원회 의장 - Mathilde Faucherie 다논그룹 다양성 및 평등 총괄 - Vincent Immanuel Herr HeForShe 캐탈리스트
10:45-11:00	<p>휴식</p>
11:00-12:30	<p>세션4.2: 성평등을 위한 다부문 접근 방안: 제한적 남성성과 사회 규범</p> <p>사회: Annette Young 저널리스트</p> <p>배경 설명: Ragnheiour Elin Arnadottir OECD 개발센터 국장</p> <p>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sa Paus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 - Ndeye Bineta Diop 아프리카연합 여성평화안보 대사 - Dr.Ramiz Alakbarov 유엔 에티오피아 인도지원조정관 - Naila Kabeer 런던정치경제대학 젠더와 개발 교수 - Carl Manlan Visa 부회장
12:30-14:00	<p>점심</p>
14:00-15:30	<p>세션5: 포괄적 글로벌 전환을 위한 정책도구 및 데이터 활용</p> <p>사회: Femi Oke 저널리스트</p> <p>배경 설명: Elsa Pilichowski OECD 공공거버넌스 국장</p> <p>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isabeth Baume-Schneider 스위스 연방위원 - Elsa Pilichowski OECD 공공 거버넌스 국장 - Michelle Bachelet 전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및 전 칠레 대통령 - Mona Al Marri, UAE 젠더균형위원회 부원장 - Renata Amaral 브라질 기획재정부 장관 - Young Tae Kim 국제교통포럼 사무총장 - Maria del Pilar Garrido Gonzalo OECD 개발협력국 국장 - Susan Snider Equality Fund 부회장
15:30-16:00	<p>폐회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rik Vestergaard Knudsen OECD 사무부총장 - Elisabeth Baume-Schneider 스위스 연방위원

패널 토론 요약

□ 세션1: 넷 제로를 위한 성평등 및 기후 행동 통합

- 본 세션은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과 성평등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여성이 국가 및 지역에서 녹색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기회와 리더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구체적으로, 기후변화는 토지와 자연에 대한 접근과 통제의 구조적 불평등으로 개발도상국에 불균등한 영향을 미침. 여성은 전 세계 농업 인력의 43%를 차지하지만 토지 소유자 중 여성은 15% 미만임. 또한, 여성은 기후변화와 기상 이변으로 인해 난민이 된 인구의 80%를 차지하며, 이로 인해 젠더 기반 폭력(GBV)의 피해를 입을 확률 역시 높음. 나아가, 기후변화는 소득과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여학생의 학교 중퇴율 증가, 조혼 및 강제 결혼 증가와 연결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환경, 재해 위험 감소 및 관리 전략에서 성별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농업, 에너지, 산업 분야의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제한적임. 한편,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분야(에너지, 운송 등)는 성평등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실제로 녹색 전환은 2030년까지 4천만 개가 넘는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OECD 회원국에서 여성은 여전히 녹색 일자리의 28%만을 차지하고 있음.



<OECD 성평등 포럼>

□ 세션2: 에너지 전환 시대의 성평등 활성화

- 본 세션은 포괄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성평등의 역할을 강조하며, 여성이 에너지 전환의 적극적인 기여자이자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여성은 에너지 부문에서 여전히 과소대표되고 있으며 남성에 비해 수입이 20% 정도 낮음. 여성은 고위직 5개 중 1개 미만을 차지하며, 에너지 스타트업 중 여성이 설립한 기업의 비율은 11%에 불과함.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부문

에서 1억 3,9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기타 녹색 일자리에서 성평등의 잠재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공공 및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이 리더십을 발휘한 조직에서 다양한 성과가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됨. 또한, 여성 기업가는 비즈니스의 경제적 목표보다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약 7% 더 높았고, 여성 이사는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우선시하며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문제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세션3: 디지털 성 격차 해소 및 디지털 기술이 여성 및 여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본 세션은 디지털 혁신이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차별, 부정적인 고정관념, 사회·문화적 편견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음. 특히, 고도로 디지털화된 경제에서 여성과 여아의 교육 기회나 직업 선택이 제한되거나 온라인 폭력과 사이버 괴롭힘으로 정신건강이 훼손되는 현상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함.
- 구체적으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여성과 여아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방해하는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 정보통신기술(ICT) 및 과학과 같은 분야에서 상당한 성별 격차가 발생함. 예를 들어, OECD 국가 전체에서 ICT 전문가로 일하는 남성의 비율은 여성에 비해 3~7배 더 높음. 또한,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여성은 과소대표되고 있으며, 디지털 영역에서 여성과 여아가 직면하는 여러 문제는 기술매개 폭력의 위협과 사이버 괴롭힘, 고정관념의 확산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됨.
- 한편, 디지털 전환은 성평등을 촉진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인재 풀(pool)의 확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새로운 관점과 혁신적인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을 도입하는 데 성평등 관점은 도움이 됨. 또한 디지털 전환은 여성의 소득 증대와 고용 창출, 정치 및 공적 영역의 참여 확대,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확대와 연관됨.



<세션3: 디지털 성 격차 해소 및 디지털 기술이 여아와 여성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본 세션에서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시장 및 교육에서 성별 격차 문제를 소개하였음. 2017-2020년 기업활동조사 및 지역별고용조사를 분석하여, 기업이 특정 기술(예: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3D 프린팅, 로봇 공학, 가상 및 증강 현실 등)을 채택했는지 여부를 변수로 산업 차원의 디지털 전환 채택 비율을 계산하고 이것이 성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디지털 기술과 여성의 취업률이 음의 상관관계임이 드러남. 그 이유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기술 기반 직업에 더 많이 고용되었기 때문임. 한편, 디지털 기술의 채택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며, 이는 여성에게도 해당되지만, 남성의 임금 상승률이 더 크기 때문에 성별 임금격차 역시 커졌다고 이야기함. 따라서, 디지털 혁신은 여성의 임금상승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결과는 낳지 못했다고 설명함.

□ 세션4: 성평등을 위한 다부문 접근 방안

- 본 세션은 두 개의 하위 세션으로 구성되었는데, 첫 번째 세션(4.1)은 ‘성평등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벽’을 주제로 정책 영역 전반에 걸쳐 지속되는 구조적 장벽의 본질을 탐구하고 다양한 정책 조치(예: 부모 수당, 육아휴직, 남성/남아 대상 인식제고 프로그램)를 소개하였음. 두 번째 세션(4.2)은 ‘제한적 남성성과 사회 규범’을 주제로 남성성, 사회적 규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에 초점을 맞추어 젠더기반폭력, 차별적인 사회 제도, 유해한 사회 규범, 불평등한 권력관계, 성별 고정관념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구체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 전반에 걸쳐 지속되는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적인 사회적 규범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음. 무급 돌봄과 가사 노동에 소요되는 시간, 낮은 고용률, 지속적인 유리 천장은 여성의 경제적 기회를 차단하고 임금, 평생 소득 및 연금 소득에서 성별 격차를 지속시킴. 정치 및 리더십 위치에서 여성의 과소성 대표 역시 고착화되고 있음. 성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됨.

□ 세션5: 포괄적 글로벌 전환을 위한 정책도구 및 데이터 활용

- 본 세션은 녹색 및 디지털 전환에서 정책 및 자원 할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요소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음. 또한, 녹색 성장과 디지털 전환이 여성과 남성의 고유한 니즈와 영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 조달과 같은 도구에 주목하고, 성인지적이고 포괄적인 데이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구체적으로, 정부는 법률, 규정, 예산, 공공 조달 및 기타 정부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교차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이 성평등을 촉진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데, 성인지예산이 대표적인 툴킷이라고 할 수 있음. 2022년에는 OECD 회원국의 60% 이상이 성인지예산을 활용한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2015년의 35%에 비해 상승된 수치임. 한편, 기후 의제와 관련하여

여 OECD 회원국 중 57%만이 정책 결정 시 성별 영향을 고려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한 환경 및 녹색 회복 조치 중 약 2.5%만이 성별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인지 데이터 구축과 더불어, 명확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가 필요함.

향후 정책 전략²⁾

□ 정책 전략

- OECD는 녹색,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의 맥락 속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 전략을 제안하였음. 먼저, 근본적으로 모두가 새로운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보다 균형있고 포용적인 인력 육성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 보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 유연 근무 활성화가 필요하며, 포용적인 직장 문화 조성, 기업 내 성별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모든 정책 영역 및 부문에 걸쳐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역시 강조되어야 함.
- 구체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1) 여성과 여아의 환경 및 에너지 관련 분야 교육훈련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2) 정책 입안자와 고용주는 여성이 경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3) ICT, 과학, 수학과 같은 분야에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소외 계층의 여성과 여아를 지원해야 함.
- 한편, 친환경,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 및 전략에 성평등을 주류화하는 것 역시 필요함. 예를 들어, 기후 적응 및 완화 정책에 있어 포괄적인 성인지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성별 고려 사항을 체계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재해의 성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재해 위험 관리 전략에서 성인지 대응 접근 방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함.
- 동시에, 정부는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포괄적인 교육 및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성 및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증진하며, 지역사회에 바탕을 둔 이니셔티브를 지원해야 함.
- 나아가, 성별로 구분된 데이터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전 정책 영역에 걸쳐 성 주류화를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 도구 및 역량을 개발해야 함. 이는 친환경,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전 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임.

2) OECD Forum on Gender Equality. Navigating Global Transitions: Co-chairs' Summary.

3

업무협력 회의

1. OECD 개발센터

□ 일시: 2024.6.10(월), 11:30~12:15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김중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 OECD 개발센터 참가자: Ragnheiour Elin Arnadottir OECD 개발센터 국장 외 2인

□ 주요내용

○ 기관 소개

- OECD 개발센터는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협력을 위해 설립된 기관 중 하나로, 각국의 경제 및 사회개발정책에 대한 경험공유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 촉진 및 사회 개발을 위한 정책 발굴을 목표로 함.

- 젠더와 개발 관련 활동

• 재원(Finance): ODA를 포함한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 및 성평등 달성을 위한 개발 재원의 양과 질 확대

• GenderNET(성평등을 위한 DAC 네트워크): GenderNET은 32개 DAC 회원국 개발기관의 성평등 관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엔 여성기구 등 기타 유엔 기구, 세계은행, 개발 은행, DAC 비회원국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력함

• SIGI(Social Institutions & Gender Index): SIGI는 사회적 제도 및 성평등 지수 분석을 통해 차별적인 사회적 관행 및 관념이 성불평등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며, 4년에 한 번 발간됨. 4개 주요 평가 분야는 다음과 같음.

1) 차별적 가족법(Discriminatory Family Code): 결혼, 이혼, 양육권 및 상속과 관련된 법률 및 관습에서의 성차별 등

2) 제한된 신체적 자율성(Restricted Physical Integrity): 가정폭력, 성폭력, 생식 보건에 대한 접근성 등

3) 제한된 자원 및 자산 접근(Restricted Access to Productive and Financial Resources): 여성의 재산권, 금융 서비스 접근권, 고용 기회 등

4) 제한된 민사적 자유(Restricted Civil Liberties): 정치적 권리, 이동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 협력 방안

- 성평등이 전세계적으로 도전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부/시민사회 연계와 파트너십 중요하다는 데 공감함. 공통의 관심 주제 관련 경험 공유 워크숍 개최를 희망함(예: 2025년도 3월 뉴욕에서 개최되는 CSW에서 돌봄노동 주제로 부대행사 개최 등.)

2. OECD 공공거버넌스국 SDGs 부서

□ 일시: 2024.6.11(화), 9:15~10:00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 OECD 공공거버넌스 참가자: Tatyana Teplova SDGs Division 부서장 외 3인

□ 주요내용

○ 기관 소개

- 공공거버넌스국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여성 역량강화, 온라인 폭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룸. 금번 성평등 포럼을 기획한 주무부서임.
- 성주류화 영역에서 젠더를 어떻게 전 정책 영역에 걸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함. 온라인 폭력의 경우 그 빈도와 방식을 찾아내기 위한 지표를 선정하는 작업을 G7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타 회원국들이 동일한 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툴킷을 제작하여 확산하고자 함.

○ 협력 방안

- 단순한 정보, 연구 결과 공유, 혹은 공동연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개발도상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기술 지원, 공동 워크숍 개최, 툴킷 개발 역시 가능함.
- 향후 어떠한 방식(modalities)으로 협력이 가능할지에 대해 기관 검토 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

3. 주 OECD 대표부³⁾

□ 일시: 2024.6.11.(화), 18:00~21:00, 2024.6.12(수), 12:30~14:00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 주OECD 대표부 참가자: 최상대 대사, 최성요 공사, 박영 노무관

□ 주요내용

- OECD 내 젠더 관련 주제발표나 회의가 빈번한데, 현재까지 한국 사례가 많이 소개되지 않았음. 향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해주기를 기대함. 특히, OECD에서 발간되는 각종 정책자료에 우리나라 정책 사례나 연구 결과가 소개되어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성평등 정책 성과 확산 및 경험 공유가 활성화되기를 바램.
- OECD 내 젠더 문제가 중요한 의제임. 금번 성평등 포럼은 최초 개최이며, 이후 2년에 한 번 고위급으로 개최될 예정임. 관련하여 향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관심을 부탁함. OECD 대표부에서도 다양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협력하고자 함.

3) 2회에 걸쳐 실무급, 고위급 면담을 진행하였음.

4. UNESCO 성평등국

□ 일시: 2024.6.12(수), 11:00~12:00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 UNESCO 참가자: Maria Begona Lasagabaster 성평등국장

□ 주요내용

○ 기관 소개

- 설립 목적: 사회 및 인문 과학 부문 아래에서 운영되며, 모든 유네스코 프로그램 및 활동에 걸친 성평등 촉진
- 활동 영역
 - 성인지적 관점 통합: 모든 유네스코 프로그램에 성평등 관점 통합. 유네스코 성평등 행동 계획 시행을 위한 지침 제공
 - 정책 개발: 조직 내부와 회원국 내 성평등 촉진 정책 개발 및 자문
 - 역량 강화: 유네스코 직원 및 파트너들의 성평등 역량 강화 지원
 - 옹호 및 인식 제고: 유네스코와 회원국 내에서 성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유네스코 성평등 이니셔티브 관련 행사(워크숍 및 캠페인 등) 조직
 - 연구 및 데이터 수집: 성평등 연구 수행 및 지원
- 2023년 'UNESCO in Action for Gender Equality' 발간: 교육, 과학기술분야 여성 역량 강화, 디지털 성격차 감소를 통한 유네스코의 성평등 증진 활동(주요 데이터, 모범사례 등)을 담고 있음.

※유네스코의 전체 예산 중 16%가 성평등에 할당되어 있으며, 이는 유엔 기구 중 가장 높은 비율임.

○ 협력 방안

- 유네스코는 향후 연구가 필요한 주제들로 1) 기술매개 폭력, 2) 뇌과학과 젠더, 3) 기후위기, 4) 공공자원 조달(public financing), 5) 재난위기경감(disaster risk reduction)을 꼽고 있는데, 향후 서로 공통된 관심사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함.



<양자면담 사진 (OECD 개발센터, UNESCO 성평등국, OECD 공공거버넌스국 순)>

4

요약 및 시사점

□ 요약 및 시사점

- OECD에서 성평등을 주제로 처음 개최된 본 포럼은 향후 격년 국제포럼으로 추진 예정임. 국제 전환 탐색(Navigating Global Transitions)을 주제로 개최된 금번 포럼에서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녹색 성장과 같은 다양한 변화로 성평등이 도전받고 있음을 확인함. 포럼은 디지털 시대의 성평등 및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한 기회, 혁신 전략 및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적절한 플랫폼을 제공하였음. 동시에, 성평등한 전환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금번 포럼에서 제기되었음. 이에, 향후 포럼은 장애, 청년 등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출장 중 OECD, UNESCO 등 다양한 기관들과 양자 면담을 통해 협력 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음.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의제 및 방식(modalities)에 대해 논의한 후 향후 협력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